

# 2023 언론단체 합동송년회 제7회 자유언론실천상 시상식

- ★ 일시\_ 2023년 12월 28일(목) 오후 5시
- ★ 장소\_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홀
- ★ 주최\_ 자유언론실천재단, 새언론포럼

# 2023 언론단체 합동송년회 제7회 자유언론실천상 시상식

- ★ 일시\_ 2023년 12월 28일(목) 오후 5시
- ★ 장소\_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홀
- ★ 주최\_ 자유언론실천재단, 새언론포럼



진행

## 제7회 자유언론실천상 시상식 2023 언론단체 합동 송년회

- 일 시 : 2023년 12월 28일(목) 오후 5시
- 장 소 :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홀
- 주 최 : 자유언론실천재단, 새언론포럼
- 진 행 :

개회	
인사말	
자유언론실천상 시상식	2023 제7회 자유언론실천상 특별상 시상 및 수상소감 - 수상자 : 이광호 (도서출판 레디앙 대표)
	2023 제7회 자유언론실천상 본상 시상 및 수상소감 - 수상자 : 고 김민아 (노무사)
언론단체 합동송년회	언론단체 대표자 송년사 - 각 단체 대표 및 회원 인사
	함께 식사 - 인근 식당(통영굴밥해물나라)으로 이동



## 2023(제7회) 자유언론실천상 본상



**고 김민아**

**노무사**

(대리 수상 : 동생 김세용)

## 김민아가 살아온 길\*

“고 김민아 노무사는 2012년부터 2014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언론탄압>의 시기에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면서 현장의 언론노동자들의 벗으로, 현장 언론노동자들이 공정한 언론을 위해 집중할 수 있게 뒤에서 든든하게 노무사로서 지원하였습니다.

단 한번도 사측을 대리한 적 없는 노무사로서 KBS, MBC, YTN 등에서 공정방송 복원을 내걸고 파업에 나선 언론노동자들을 비롯해 비정규직 언론노동자들의 현실을 도왔습니다. 또 암 재발 이후, 생을 마감하기 바로 직전까지 언론노조 KBS본부, MBC본부, CBS지부 등 언론노조 아래 공영방송을 위해 투쟁하는 방송사 노조의 자문을 맡았습니다.

특히 고 김민아 노무사는 200명의 사원행동에서 지금의 KBS본부가 되기까지, 차가운 겨울 아스팔트 바닥에서 지금의 자랑스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기까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공정방송 투쟁에 한없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2017년 파업의 현장 어디든 나타나 언론노동자의 ‘공정방송’이라는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고군분투했습니다.

MBC본부 역시 고 김민아 노무사의 도움으로 2012년 파업이 정당했고, 각종 해고와 정직은 모두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위암을 이겨내고, 법무법인 도담의 공인노무사로 다시 문화방송본부 자문 노무사로 언론현장에 복귀했을 때 사측은 보복인사를 통해 일명 ‘유배지’에 과거 총파업에 참여했던 수십명의 조합원들을 내몰았습니다. 김민아 노무사는 사측의 인사폭거에 대한 대응과 공정방송으로의 회귀를 위한 전략을 조합과 함께 고민할 줄 아는 유일한 노무사였습니다.

\* 이 자료 중 추천사를 제외한 내용은 고 김민아 노무사의 장례식장에서 배포된 추도지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고 김민아 노무사에게 <자유언론실천상>이 수여되어 그가 꿈꾸던 ‘언론노동자가 공정한 언론의 가장 바탕이 되는 세상’으로 가는 길에, 언론노동자들이 그의 부재에 대한 슬픔을 이겨내고 힘을 내어 자유언론을 이룩하기 위한 ‘단결된 힘’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 자유언론실천상 후보 추천서 중에서

“일하면서 고통 받는 사람들과 현장에서 함께 하겠다”.

- 민중의소리 인터뷰 중에서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6개월 동안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치료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지금 딱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무렵, <보르헤스의 말>이라는 책에서 "어차피 곧 죽을텐데, 어떤 순간이든 죽음이 닥칠 수 있는데 왜 이런 저런 일로 걱정을 해?"라는 문장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길고 짧을 뿐 어차피 가만 있어도 죽을텐데, 죽고 싶어 하는 마음조차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삶이 진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지요.

저는 이때부터 욕구를 자제하거나 수줍어하는 태도가 겸손이라기보다는 영원이 살 것으로 생각하는 자만이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든 짧든 자기 생을 살아낸다는 것은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사람인지 찾아가는 과정을 얼마나 성실하게 해내느냐 아닐까 싶어요. 저는 저의 일을 통해 제 인생에서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 뉴그라운드 '일하는 사람, 김민아의 내-일을 위한 스스로 인터뷰' 중에서



## □ 주요 경력

- 1979년 2월 2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출생 1녀 1남 중 첫째
- 1998년 2월 성남시 서현고등학교 졸업
- 1998년 2월 연세대학교 법학과 입학  
(법학과 법사회학회, 법과대학 학생회, 여학생회 활동)
- 2003년 2월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06년 9월 제15회 공인노무사 합격
- 2007년 1월 ~ 8월 민주노총서울본부 공인노무사 수습
- 2007년 9월 ~ 2009년 건설노조 법규차장 활동
- 2009년 ~ 2011년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공인노무사 근무
- 2012년 ~ 2014년 언론노조 조직부장 활동
- 2015년 ~ 2017년 3월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공인노무사 전임 연구  
원 근무. 노동법 상담과 교육, 파업중인노동조합특별자문
- 2015년 3월 ~ 2020년 7월 고려대학교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노동법 전공)
- 2017년 4월 ~ 현재 법무법인 도담 공인노무사 근무
- 2018년 4월 ~ 현재 노동교육센터 늘봄 설립
- 2020년 2월 ~ 2022년 1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사무국장
- 2022년 11월~현재 한겨레신문 칼럼 <김민아 노무사와 ‘함께푸는’  
노동문제> 기획연재 기고
- 2023년 4월 30일 공동 회화 전시회
- 현재 언론노조 KBS본부, MBC본부, CBS지부,  
카카오노동조합 등 노동조합 자문
- 2023년 12월 7일 잠들다

## □ 기타 경력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정한 뉴스레터 <출근준비> 발행
- 청년유니온 부설 <유니온센터> 이사

- 사단법인 <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
-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상담노무사
-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위원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인사위원회 위원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불평등과 시민성 연구소> 정회원
- 전) <시사IN> 칼럼리스트
- 전)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인사위원회 인사위원
- 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BS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처우개선 실태조사> 자문위원
- 전) 청년유니온 자문위원
- 전)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조합 법률지원 자문노무사
- 전) 일과 삶을 스스로 기획하는 여성들의 커뮤니티 <빌라선샤인> 자문노무사
- 전) 경력보유여성 커리어빌딩 플랫폼 <위커넥트> 이사 및 자문노무사

## □ 저서 및 논문

- 『생존 그 이상을 꿈꾸는 2030세대 노동이야기, 자비없네 잡이없어』 (공저, 2018)
- 『보건의료산업에 진입하는 취약계층 청년의 경험: 간호조무사 사례를 중심으로』 (공저, 2020)

## □ 인터뷰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일터민주주의의 현황과 발전과제』 (공저, 2021) 인터뷰
- 『야망 있는 여자들을 위한 비밀사교클럽』 단 한 번도 사측 대리한 적 없는 노무사의 패기 (오마이뉴스, 2019)

- 『야망 있는 여자들을 위한 비밀사교클럽』 여성 노무사에게 "귀엽네" 하던 노조, 그 후 (오마이뉴스, 2019)
- 사법고시를 포기하고 노무사를 선택한 까닭은 (민중의소리, 2021)
- 일하는 사람, 김민아의 내-일을 위한 스스로 인터뷰 (뉴그라운드, 2021)

## □ 투병 과정

- 2015년 12월 위암 1기 진단
- 2016년 위 절제수술(수술 후 2기로 판정) 후 항암치료
- 2020년 12월 발병 후 5년 경과
- 2022년 3월 16일 암 재발 진단
  - 4월 13일 세브란스 면역 항암 치료 시작
  - 9월 뇌졸중 발병 강북삼성병원에서 뇌종양(뇌하수체 선종) 제거 수술
  - 10월 세브란스 항암치료 변경(매주 1회 항암주사 투입)
- 2023년 2월 업무 복귀(종전 항암치료 병행)
  - 6월 8일 흉수 제거수술 및 흉막전이 진단, 항암치료 변경
  - 11월 2일 세브란스 주치의가 마지막을 준비할 것을 권유, 차회 진료시 보호자 면담을 요구
  - 11월 6일 대상포진 진단 및 약 처방
  - 11월 11일 자택에서 뇌출혈 증세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 신촌세브란스 병원 응급실 이송
  - 11월 12일 중환자실 입원
  - 11월 15일 일반병동으로 이동
  - 11월 22일 새벽에 폐렴 증세를 보여 중환자실로 이동
  - 11월 23일 주치의가 회생 불가능 상태를 고지

## 2023(제7회) 자유언론실천상 특별상



이 광 호  
도서출판 레디앙 대표

## 이광호 대표는

1989년 민주일보 경제부 기사를 시작으로 민주일보노조 위원장, 민주출판 언론노조협의회 의장(1990),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대외협력실장(1992), <미디어오늘> 창간 편집국장(1995),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 창간 편집국장(1996), 민주노동당 <진보정치> 창간 편집위원장(2000), 인터넷 신문 <레디앙> 창간 편집국장 및 대표(2005), 도서출판 레디앙 대표(2012), 자유언론실천재단 기획위원(2014), 새언론포럼 부회장, <노회찬 평전> 집필 출간(2023) 등 그의 이력을 보면 ‘오로지 한길’ 진보 언론과 노동운동, 진보정당 운동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올해(2023) 6월 4년여의 각고의 노력 끝에 <노회찬 평전>을 내놓았는데 이 책은 사회적 불평등에 맞서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노회찬의 삶을 집대성하는 한편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노회찬의 삶과 꿈을 되살렸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노회찬 평전>은 현재 분열과 노선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 언론인들과 시민들, 노동자들에게도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는 좋은 미디어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자유언론실천상 후보 추천서 중에서

## 성실하게 기록하려는 노력에 대한 격려

2023년 연말에 뜻밖의 의미 있는 선물을 주신 자유언론실천재단과 세계 『노회찬 평전』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노회찬재단에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안기석 동지로부터 자유언론실천상 후보로 저를 추천할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과연 평전 출판이 언론 자유, 또는 언론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선뜻 판단이 서지 않아 머뭇거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 다른 언론 관련 상 후보로 평전 출간이 추천됐을 때는 정중하게 추천을 사양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번에 추천 후보로 올리는 것에 못 이기는 척 응한 것은 상을 받고 싶은 욕망을 그럴싸하게 은폐할 논리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기록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노회찬 의원께서는 생전에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이고 이를 기록하는 것은 나의 임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한 정치인의 과거를 기록하는 일을 했고, 언론은 오늘을 기록하는 일입니다. 과거는 기억된 현재이며, 현재는 끊임없이 과거를 향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 기록은 시간적, 공간적 공유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을 엄정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미래의 역사학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 함께 사는 사람들을 위해 그렇습니다. 시

비를 가릴 생각 없이, 모든 다툼을 공방전으로만 치부하는 기록, 거짓과 진실도 50대 50으로 다뤄야 한다는 강박적 형식논리에 갇힌 기록, 진실을 향하지 않은 가십 같은 사실들의 나열식 기록, 기록되지 않고 버림받은 기록,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거대 양당의 적대만 키우고 공생의 보수성을 외면하는 기록, 국민들의 희망과 꿈이 아니라 적대와 편견을 동원하는 정치에 편승하는 기록…… 이른바 레거시 언론의 한계로 지적되는 것들입니다.

성실한 기록자로서의 기자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는 시대, 그것이 부재하여 더 필요한 시대에, 이번 제계 주신 상은, 탁월성과는 거리가 한참 멀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기록하려는 노력의 가상함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평전 작업을 해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중요한 사람은 권력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힘이 센 사람입니다. 도둑놈은 도둑질한 놈입니다. 중요한 사람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일상을 살아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고, 그런 점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잘 하는 것’입니다. 4년 동안 작성한 답안지를 제출하고, 초조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있는 저에게, 모든 독자들은 채점관입니다. 이번 상은 저의 과제물에 대한 채점 결과라는 점에서 약간의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 도서출판 레디앙 대표 이광호

# 2023(제7회) 자유언론실천상 선정 과정

## □ 심사위원 명단

김동현(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부위원장)

신흥범(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전 위원장)

유숙열(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임나혜숙(새언론포럼 부회장)

김용만(한국기자협회 사무총장)

신미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박강호(자유언론실천재단 상임이사)

## □ 일정

- 11월 14일(화) 후보 추천 요청 공고

- 11월 28일(화) 오전 11시, 자유언론실천재단 제35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 최종 확정

- 12월 15일(금) 24시 후보 추천 마감. 자유언론실천상 부문만 총 7건(중복 추천 포함 총 6명) 접수됨

- 12월 19일(화) 오후 4시, 재단 사무실에서 심사위원회 회의 진행. 결과는 보도자료 참조

- 12월 28일(목) 오후 5시,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홀에서 '2023 언론단체 합동 송년회'와 함께 시상식 개최



수 신 : 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 / 사회부, 문화부, 여론매체부

발 신 일 : 2023년 12월 20일

## 〈2023 자유언론실천상〉 본상에 고 김민아 노무사, 특별상에 『노회찬 평전』 집필 이광호 대표 선정

오는 12월 28일(목) 오후 5시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홀에서 ‘언론단체 합동송년회’와 함께 시상식

1. 국민의 알 권리 제고와 공정정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자유언론실천재단(이하 재단, 이사장 조성호)은 매년 연말 언론운동과 언론활동을 통해 자유언론실천에 기여한 이에게 〈자유언론실천상〉을, 언론운동을 하다 피해를 입거나 자유언론실천을 위해 노력한 언론인과 그 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언론운동기금·장학금〉을 수여합니다.

3. 재단은 지난 12월 19일(목) 심사위원회(김동현 신홍범 유숙열 임나혜숙 김용만 신미희 박강호)를 열고 제7회 〈자유언론실천상〉 본상 수상자로 고 김민아 노무사(법무법인 도담 소속,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직부장)를, 특별상 수상자로 이광호 도서출판 레디앙 대표를 선정했습니다. 제8회 〈언론운동기금·장학금〉 수상자는 추천된 후보가 없는 관계로 올해는 수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4. 본상 수상자인 고 김민아 노무사는 만 44세의 나이로 지난 12월 7일 영면에 들기까지 언론노동자의 벗으로서, 단 한 번도 사측을 대리한 적 없는 노무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2012~2014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탄압 정국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정권의 KBS·MBC·YTN 등 언론탄압에 맞선 파업투쟁 등에 함께하면서 고군분투 했습니다. 200명의 사원행동으로 시작해 조합원수 과반이 넘는 교섭대표노조가 되기까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공정방송 투쟁에 한없는 도움을 주었고,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2012년 파업 정당성을 인정받고 각종 해고와 정직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내는 등 법률활동가로서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암 재발 이후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KBS본부, MBC본부, CBS지부, 카카오노동조합 등 언론·미디어기업 노조들의 자문뿐 아니라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고통 받는 이들의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5. 특별상 수상자인 이광호 도서출판 레디앙 대표는 1989년 민주일보 경제부 기사를 시작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민주출판언론노조협의회 의장, <미디어오늘> 창간 편집국장,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 창간 편집국장, 민주노동당 <진보정치> 창간 편집위원장, 인터넷신문 <레디앙> 창간 편집국장 등 평생을 ‘오로지 한길’ 진보언론과 노동운동, 진보정당 운동에 헌신해왔습니다. 특히 그는 올해 6월 4년여 각고의 노력 끝에 『노회찬 평전』을 내놓았습니다. 4년 내내 노회찬 전 의원의 가족, 동지, 친구들을 인터뷰하고 관련 자료 조사 연구와 집필에 온 힘을 쏟아, 사회적 불평 등에 맞서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노회찬의 삶을 집대성하는 한편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노회찬의 삶과 꿈을 되살렸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노회찬 평전』은 현재 분열과 노선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 언론인들과 시민들, 노동자들에게도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는 좋은 미디어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6. 시상식은 오는 12월 28일(목) 오후 5시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홀(서울시 중구 퇴계로 212-13, 충무로역 1번 출구 방향)에서 ‘언론단체 합동 송년회’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참고 <역대 수상자 명단>

(1) 자유언론실천상

년도(회차)	수상자	소속·직위	선정이유
2017년 (1회)	(본상)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공영방송 정상화 등 시민언론운동에 헌신
2018년 (2회)	(본상) 오태훈	KBS 아나운서 (전 KBS본부 부분부장)	KBS 정상화 투쟁에 헌신
2019년 (3회)	(본상) 김준일	뉴스톱 대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허위 조작 정보와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헌신적인 노력으로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로 확고히 자리잡았으며 ‘언론의 언론’으로 불리며 호평받고 있음
	(특별상) 이이슬· 장성길· 류석민	KBS부산 보도국	슈퍼타워 속에 숨은 인간의 욕망과 그 위험성에 대해 질문하고 앞으로 개발이 어떻게 진행돼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미래의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 공공과 시민의 역할을 고민한 점을 높이 평가함
2020년 (4회)	(본상)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힘들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언론운동 활동가로서의 씩 없는 헌신적인 삶과, 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언론운동 현장을 향하는 모습은 활동가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음
2021년 (5회)	(본상)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18년 동안 언론운동 활동가의 한길을 걸으며, 묵묵히 표나지 않는 굶은일을 도맡아 하고 헌신적인 언론운동 활동가로서 씩 없는 삶을 삶
	(특별상)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	23년 동안 저널리스트로서의 한길을 걸으며 우리 사회 민주화와 언론 바로세우기에 크게 기여했고 특히 미디어오늘 사장을 맡아 언론권력 감시와 언론개혁

			이슈를 선도해 한국 언론 공론의 장으로 미디어오늘이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함
2022년 (6회)	(본상) 탁종열	노동인권저널리움센터 소장	20여 년의 언론노동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노동인권저널리움센터를 조직해 노동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모니터 활동을 꾸준히 해왔으며 현장 기자와 활발한 소통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저널리즘 재확립과 언론운동 방향 재정립을 모색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한 의지와 희생으로 성과를 내고 있음
	(특별상)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20주년을 맞는 언론인권센터의 16년 동안 한 곳에서 현재의 언론인권센터가 중견 언론시민단체로 성장하는데 중심 역할을 해옴. 언론의 오보나 선정적 보도 행태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는 상담과 소송 대리 등의 활동을 넘어 다양한 시민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실행,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언론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감시 및 개선 방향을 이끌어내는 방향키 역할을 함

## (2) 언론운동기금, 장학금

년도(회차)	수상자	소속·직위	선정이유
2016년 (1회)	이용마	MBC 해직기자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 중 해고 후 암투병 지원
2017년 (2회)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	꾸준한 불교계 적폐 보도 및 이에 따른 탄압에 맞선 투쟁
2018년 (3회)	이은용	뉴스타파 객원기자	부당해고 후 권력과 자본에 얽매이지 않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음 (자녀 장학금 지원)
2019년 (4회)	김순애	방송기자연합회 사무국장	1988년 문화방송노조 활동을 시작으로 30여년 언론노조 및 언론단체 활동가로 살아온 한결같은 삶을 살았으며 꾸준함과 성실함, 곳은일 도맡아 묵묵히 표나지 않게 일해온 모습은 활동가들의 모범이 됨
2020년 (5회)	김병관	조선동아폐간을 위한무기한 시민실천단 단장	2020년 1월 1일부터 조선 동아 폐간을 위한 줄기찬 투쟁을 펼침. 광화문, 과천, 청와대 앞 등 하루도 쉬지 않고 싸우면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줌
2021년 (6회)	신정자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 위원	한국 사회 언론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는 삶을 보여줌. 특히 군사독재 정권의 감시와 탄압으로 온갖 고초와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표 나지 않지만 묵묵히 공동체를 위한 삶을 이어옴.
2022년 (7회)	이현재 · 이경재	고 이용마 MBC 기자 자녀	정권 교체 후 언론계 곳곳에서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탄압하는 움직임이 횡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3년 전 두려움 없이 투쟁의 대오에 앞장서다 떠난 고 이용마 MBC 기사를 다시 기억하며, 이 기자의 유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잊지 않고자 함.

(끝)

# 자유언론실천상 시상 규정

## 자유언론실천상 시상 규정

- 제8차 이사회(2017.8.16.) 제정
- 제10차 이사회(2019.1.25.) 1차 개정
- 제14차 이사회(2020.1.29.) 2차 개정
- 제15차 이사회(2020.5.12.) 3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자유언론실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정관 제4조(목적사업) 5항 ‘자유언론실천을 위해 노력하다 해직 등의 피해를 입은 언론인과 그 가족 및 시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자유언론실천상>을 시상하기 위해 제정한다. <개정 2020.1.29.>

제2조(자유언론실천상) 이 규정에서 자유언론실천상이라 함은 재단이 언론운동과 언론활동을 통해 자유언론실천에 기여한 이에게 주는 상과 상금을 말한다. <개정 2019.1.25>

제3조(수급 자격) 전체 삭제 <개정 2019.1.25>

제4조(선발) 자유언론실천상 수상자는 언론현업단체나 언론시민단체, 언론학회, 재단 이사·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발한다.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다. <개정 2020.5.12.>

제5조(지급 기준) 자유언론실천상 지급액은 매년 재단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지급 시기) 자유언론실천상 지급은 재단 ‘송년의 밤’ 행사 때 한다.

# 언론운동기금 · 장학금 시상 규정

## 자유언론실천재단 언론운동기금·장학금 규정

- 제8차 이사회(2017.8.16.) 제정

- 제15차 이사회(2020.5.12.) 1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자유언론실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정관 제4조(목적사업) 5항 ‘자유언론실천을 위해 노력하다 해직 등의 피해를 입은 언론인과 그 가족 및 시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정한다.

제2조(언론운동 기금·장학금) 이 규정에서 언론운동 기금·장학금이라 함은 언론운동을 하다 피해를 입거나 자유언론실천을 위해 노력한 언론인과 그 가족 및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기금과 장학금을 말한다.

제3조(수급자격 및 추천) 언론운동을 하다 피해를 입거나 자유언론실천을 위해 노력한 언론인과 그 가족 및 시민들은 자격이 있다. 추천은 언론현업 단체나 언론시민단체, 언론학회, 재단 이사·운영위원이 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제4조(신청) 전체 삭제 <개정 2020.1.29.>

제5조(선발) 언론운동 기금·장학금 수혜자는 언론현업단체나 언론시민단체, 언론학회, 재단 이사·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발한다.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다. <개정 2020.5.12.>

제6조(지급 기준) 언론운동 기금·장학금 지급액은 매년 재단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조(지급 시기) 언론운동 기금·장학금 지급은 재단 ‘송년의 밤’ 행사 때 한다.







